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06/02/2024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새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 말은 “변방 늙은이의 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관리 소홀로 인해 도망가버렸습니다. 재산 상의 손실을 입은 노인을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얼마 후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축하하는데,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이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중에 한 마리를 타다 떨어져 다리를 다쳐 장애를 입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얼마 뒤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관리들은 집집마다 아들들을 전쟁터로 차출해 갔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 장애로 인해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쟁터에 끌려간 많은 아들이 죽거나 크게 다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노인의 말대로 말에 떨어져 다친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생만사 새옹지마”란 말은 인생의 복과 화는 알 수 없으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도다> 세상을 살면서 가볍게 살지 않고 풍파를 견뎌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면 견뎌낸 깊이만큼 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삭빠르게, 이익을 추구하며, 실리를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인생의 한 단면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분적인 성공을 맛보게도 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런 것들은 결국 진정한 성공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큰 성공을 통해서도 겸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매 맺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로 이 땅에 은혜를 바다를 만들어가야 합니다.